

금리 우려 등으로 반등 폭 제한되는 양상이지만...



은행 Weekly | 2025.5.19

Analyst 최정욱, CFA cuchoi@hanafn.com

RA 정소영 soyoungjung@hanafn.com

전주 주요 뉴스 기사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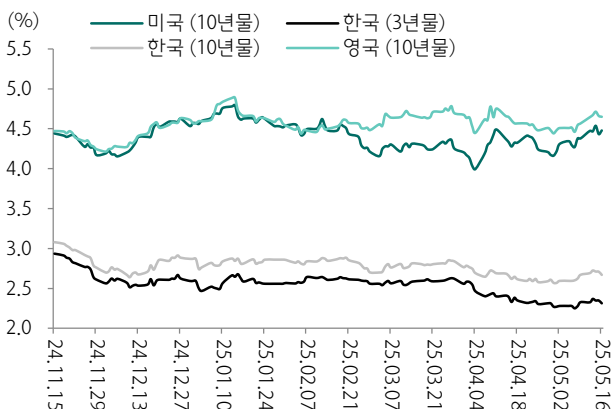
- 6·3 대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앞세운 공약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금융권이 바짝 긴장. 내수침체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경제 회복 취지이지만 정책 실행의 부담이 은행권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
- 6·3 대선 주요 후보의 공약이 일부 공개되면서 가상자산거래소와 연결하는 은행 계좌를 1곳만 허용하는 '1거래소 1은행' 제도 가 해제 수순을 밟을 전망. 거래소와 은행 모두 해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데다 정치권도 이런 흐름에 동참하는 분위기
- MBK파트너스가 롯데카드 재매각에 돌입. 매각주관사로 UBS 선정하고, 7~8개 잠재인수자에게 티저레터 발송. 하나금융과 KB 금융이 유력 인수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어두운 업황과 높은 몸값 등으로 새 주인 찾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
- 커지는 AI 시장. 주요 시중은행들이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도입하면서 은행권에선 생성형 AI 각축전이 펼쳐지고 있는 모습. 직원 업무 효율을 높이는 것부터 고객 서비스까지 영역을 넓히고 나아가 새 사업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

Valuation, Performance 및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

(2025년 5월 16일 종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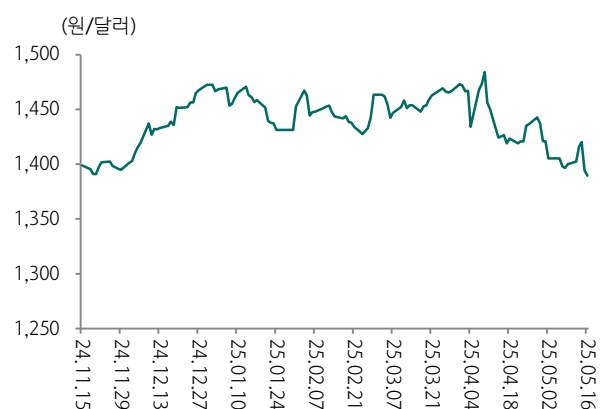
	PBR (2025F)	PER (2025F)	ROE (2025F)	ROA (2025F)	Mkt. Cap. (bil.)	Performance (%)				Weekly Net Buy (십억원)			
						1W	1M	3M	YTD	국내기관	연기금	외국인	개인
KOSPI	0.98	17.3	5.6		2,154,435.5	1.9	7.3	1.4	9.5	533.7	0.6	1,090.5	-1,765.4
은행	0.42	5.1	8.5	0.62	126,848.3	2.2	11.7	8.8	12.1	90.5	-10.6	34.0	-119.7
KB 금융	0.55	6.4	9.0	0.70	36,834.3	1.7	17.0	17.4	12.9	17.2	-9.8	13.6	-30.1
신한지주	0.43	5.5	8.8	0.65	25,684.6	2.2	8.4	7.1	8.7	32.0	-0.7	-11.5	-20.0
우리금융	0.37	4.4	8.6	0.56	13,396.4	2.0	9.7	5.8	17.4	4.9	-3.3	11.1	-15.6
하나금융	0.39	4.6	9.0	0.62	18,957.9	3.4	14.4	8.6	16.2	21.6	2.1	3.1	-23.0
기업은행	0.35	4.5	7.9	0.57	12,328.2	2.0	6.8	0.7	7.9	-0.3	-0.2	19.5	-18.0
BNK 금융	0.30	4.2	7.3	0.52	3,343.0	1.3	4.2	-6.9	1.5	8.2	0.1	-3.4	-4.5
이M 금융	0.27	3.8	7.4	0.46	1,748.8	1.2	13.6	9.4	28.5	0.3	1.2	4.7	-4.7
JB 금융	0.55	4.9	11.8	1.01	3,465.1	3.3	3.5	-1.0	9.8	6.6	0.1	-3.0	-3.9
카카오뱅크	1.61	21.7	7.6	0.77	11,090.0	2.4	11.5	-1.3	10.5	1.1	0.8	7.4	-8.4
삼성카드	0.55	7.3	7.7	2.21	4,866.1	0.0	4.2	-1.1	6.5	0.1	-0.7	-0.1	0.0

최근 6개월 글로벌 금리 추이



주: 국고채 10년물 기준, 한국은 3년물과 10년물

최근 6개월 원/달러 환율 추이



주: 원/달러 환율은 종가 기준

전주 평가와 금주 전망

- 전주 은행주는 2.2% 상승해 KOSPI 상승률 1.9%와 거의 대동소이한 주가 흐름을 보였음. 다만 원/달러 환율이 1,390원대 안착 현상을 보이는 등 환율 모멘텀 발생 기대에도 불구하고 은행주 주가는 예상보다 다소 밋밋한 흐름을 보였는데 그 이유는 1) 국내 경기 우려로 5월말 한은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기준금리 인하 관련 우려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다 2) 대선이 본격화되면서 대선 후보들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들을 발표하고 있어 정책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 채무조정 또는 특별대출, 수수료 감면 및 폐지 등 공약들이 분출되고 있는 상황. 전주에도 미국 국채금리는 추가 상승.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지고 있고, 세제 관련 법안이 미국의 재정적자 폭을 늘려 국채발행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국채금리 상승을 야기. 미국 5월 소비자심리지수는 하락했지만 기대인플레이션이 급등하면서 10년물보다 2년물 금리 상승 폭이 더욱 커졌음. 전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45%로 마감해 한주간 7bp 추가 상승한 반면 2년물 국채금리는 3.99%로 한주동안 10bp 상승. 한편 국내 채권금리는 글로벌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 인하 우려를 반영하면서 10년물 국채금리는 2.68%로 1bp 상승에 그쳤고, 3년물 국채금리는 2.32%로 한주동안 1bp 하락. 원/달러 환율은 미중 관세 휴전 소식으로 1,420원선까지 상승하기도 했지만 밀라노 한미 환율 협상설에 한때 1,390원선을 하회하기도 했음. 결국 1,400.0원으로 마감해 한주간 0.2원 상승했지만 국내 이코노미스트들은 대다수 1,300원대 후반 하향안정화를 전망. 외국인인 지난주에 KOSPI를 1.1조원 순매수한 가운데 은행주도 340억원을 순매수해 소폭이나마 순매수. 국내 기관도 KOSPI를 한주간 약 5,340억원 순매수했고 은행주도 900억원을 순매수했지만 은행들의 자사주 매입분 1,250여억원을 감안시 외국인이나 국내 기관 모두 은행주에 대해 뚜렷한 매매방향성은 없는 상황임
- 전주 특징주는 하나금융과 JB금융. 하나금융은 원/달러 환율 하락 현상에 대한 기대감 반영으로 국내 기관이 순매수에 나서면서 주가가 한주간 3.4% 상승했고, JB금융은 최근 초과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로 인해 주가가 3.3% 반등해 두 은행의 주가 상승 폭이 소폭이나마 가장 컸음. 그 외 대부분의 은행들도 모두 주가가 1~2%대 상승
- 주요 언론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와 연결하는 1거래소 1은행 제도가 해제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보도. 금융당국은 아직 미온적이지만 거래소와 은행 모두 해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대선후보들의 공약에 관련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 로드맵에 따라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한 만큼 1거래소 1은행 체제가 전면 해제되기보다는 일단은 개인과 법인을 분리한 1거래소 2은행 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다수의 복수은행 전면 허용시 계좌 추적이 복잡해지는 등 자금세탁 감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논리가 작용할 수 있기 때문. 하반기부터 전문투자자 법인의 경우 가상자산 시범 매매가 가능해지는데(일반법인의 전면적 시장 참여는 입법과 세제 관련 제도 정비가 완료된 이후에야 가능) 기존 1은행 제도 해제로 법인 실명계좌 발급 은행으로 추가 선정되는 곳은 주가에 모멘텀 요인으로 작용할 공간이 큼
- 시중금리와 환율이 하락하면서 은행 2분기 순이익은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선반영하면서 국내 국고채 1년물과 3년물 금리는 4~5월에만 각각 32bp와 25bp 하락. 물론 시중금리 하락이 NIM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불가피하지만 이는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데다 최근 은행들의 조달비용률 하락 추세를 감안하면 연간 기준으로도 하락 폭이 우려보다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채권 관련 매매평가익은 대폭 늘어날 여지가 높기 때문. 여기에 원/달러 환율도 2분기 중에 크게 낮아지면서 외화환산익도 상당한 규모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환율 하락에 따른 외화환산익 발생은 하나금융, 기업은행, 우리금융 순으로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
- 금리와 규제 관련 불확실성이 작용하고 있지만 2분기 실적도 기대치를 상회할 것이고, CET 1 비율 추가 상승 등이 밸류업 기대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은행주 상승 추세가 훼손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 환율 모멘텀도 아직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황. 만약 미국 신용등급 강등으로 은행주가 조정을 보일 경우에는 비중확대 기회로 삼을 것을 권고

주간 선호 종목 - 주간 단위의 단기 선호 종목으로서 당사 최선호 종목 및 중장기 선호 종목과는 다를 수 있음

하나금융(매수/TP 82,000원), 신한지주(매수/TP 72,000원)

- 하나금융은 순익 외에도 NIM과 CET 1 비율 추가 상승 등 1분기 호실적 시현으로 올해 4조원대 이익 기대. 최근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환율 모멘텀을 크게 받을 것으로 전망. 환율 하락은 이익과 자본비율 측면에서 하나금융에 가장 유리하기 때문
- 신한지주 1분기 CET 1 비율은 13.27%로 2022년 이후 최대 수준. 최근 경쟁사와의 PBR gap이 다시 크게 확대되면서 상대적 측면에서도 가격 매력이 커진 상황. 주가 상승을 위해서는 외국인 순매수 전환 여부가 중요한데 최근 순매도 강도 약화 중

Global Peer Table

(2025년 5월 16일 종가 기준)

	PBR (2025F)	PER (2025F)	ROE (2025F)	ROA (2025F)	Mkt. Cap. (bil.)	Performance(%)			
						1W	1M	3M	YTD
KOSPI	0.98	17.3	5.6		2,154,435.5	1.9	7.3	1.4	9.5
은행	0.42	5.1	8.5	0.62	126,848.3	2.2	11.7	8.8	12.1
KB금융	0.55	6.4	9.0	0.70	36,834.3	1.7	17.0	17.4	12.9
신한지주	0.43	5.5	8.8	0.65	25,684.6	2.2	8.4	7.1	8.7
우리금융	0.37	4.4	8.6	0.56	13,396.4	2.0	9.7	5.8	17.4
하나금융	0.39	4.6	9.0	0.62	18,957.9	3.4	14.4	8.6	16.2
기업은행	0.35	4.5	7.9	0.57	12,328.2	2.0	6.8	0.7	7.9
BNK금융	0.30	4.2	7.3	0.52	3,343.0	1.3	4.2	-6.9	1.5
IM금융	0.27	3.8	7.4	0.46	1,748.8	1.2	13.6	9.4	28.5
JB금융	0.55	4.9	11.8	1.01	3,465.1	3.3	3.5	-1.0	9.8
카카오뱅크	1.61	21.7	7.6	0.77	11,090.0	2.4	11.5	-1.3	10.5
삼성카드	0.55	7.3	7.7	2.21	4,866.1	0.0	4.2	-1.1	6.5

미국

S&P 500	4.62	22.8	18.6	8.14	52,390.2	5.3	13.1	-2.2	1.3
은행	1.39	12.7	10.9	0.95	1,801.5	6.1	18.3	-4.5	5.7
Wells Fargo	1.44	13.9	11.3	1.01	247.9	5.1	19.7	-4.2	8.5
JPM	2.14	14.6	15.4	1.23	743.6	5.7	16.5	-2.6	11.6
CITI	0.69	10.4	7.1	0.58	141.4	6.0	22.9	-9.8	7.6
BOA	1.18	12.3	10.0	0.85	336.6	6.9	19.7	-4.2	1.7
US Bancorp	1.24	10.4	12.4	1.04	70.0	6.9	18.8	-4.8	-6.1
PNC	1.33	12.0	11.5	1.08	71.0	7.8	18.4	-6.5	-7.0
BB&T	0.89	10.8	8.5	0.98	54.2	6.1	16.5	-10.4	-4.6

중국

상해A주지수	1.25	13.0	9.8	0.79	52,280.3	0.8	2.9	0.8	0.5
은행	0.67	7.0	9.8	0.74	11,041.3	0.6	3.1	5.8	4.6
공상은행	0.65	7.2	9.4	0.72	2,378.1	-0.1	1.4	2.4	3.5
건설은행	0.68	6.9	10.1	0.81	1,623.1	-0.6	3.5	7.1	4.4
농업은행	0.71	7.2	10.0	0.65	1,927.8	1.5	4.1	7.3	4.7
중국은행	0.65	7.4	9.0	0.71	1,546.9	-0.4	1.6	6.3	2.2
교통은행	0.54	6.5	8.6	0.61	529.5	0.9	0.1	6.0	-2.4
초상은행	0.97	7.6	13.3	1.20	1,121.2	1.8	4.8	5.3	12.6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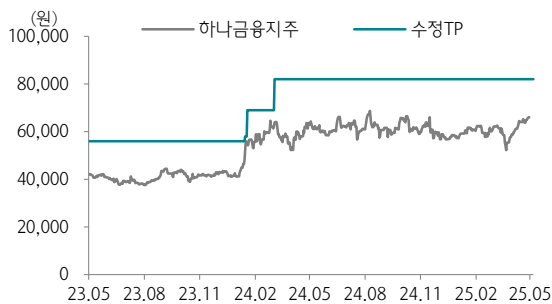
NIKKEI	1.92	18.2	9.9	3.16	699,941.5	0.7	11.3	-2.7	-5.4
은행	0.89	12.5	7.0	0.51	62,521.0	3.6	14.1	-2.4	0.7
Mitsubishi UHF	1.06	10.9	9.8	0.54	23,495.8	7.5	18.6	2.0	5.5
Sumitomo Mitsui Financial	0.85	9.9	8.9	0.53	13,444.1	1.0	10.3	-7.6	-8.0
Mizuho	0.83	9.3	9.3	0.33	9,275.8	0.6	11.9	-13.2	-4.7
Sumitomo Mitsui Trust	0.80	9.3	8.8	0.42	2,603.5	4.6	12.3	-3.8	-1.0

유럽

MSCI Europe	2.11	15.4	12.9	0.95	13,422.7	2.3	9.3	1.0	8.1
은행	1.06	9.1	11.6	0.63	1,433.2	4.1	14.5	15.1	29.2
HSBC	1.17	8.9	13.1	0.71	155.6	4.0	13.1	5.7	12.4
Santander	1.05	8.2	12.3	0.72	104.7	3.9	16.7	21.4	54.8
BNP Paribas	0.76	7.9	9.5	0.40	89.8	2.4	10.9	13.5	34.1
Credit Agricole	0.73	8.2	9.5	0.26	52.5	3.0	6.5	13.5	30.5
Deutsche	0.71	8.8	7.9	0.41	48.6	3.0	21.6	29.8	50.0
Unicredit	1.38	9.3	15.2	1.18	88.0	5.0	15.0	24.2	4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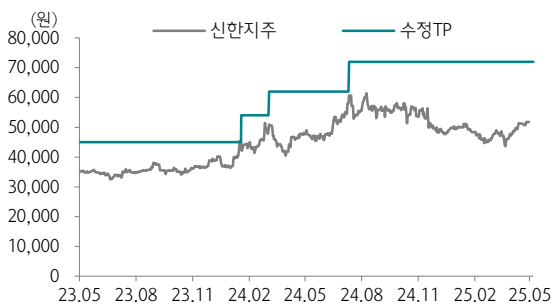
투자 의견 변동 내역 및 목표주가 괴리율

하나금융



날짜	투자 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4.3.21	BUY	82,000		
24.2.5	BUY	69,000	-15.85%	-6.38%
24.2.1	BUY	58,000	-3.62%	-3.62%
23.4.5	BUY	56,000	-26.55%	-14.64%

신한지주



날짜	투자 의견	목표주가	괴리율	
			평균	최고/최저
24.7.29	BUY	72,000		
24.3.21	BUY	62,000	-23.07%	-6.45%
24.2.5	BUY	54,000	-16.81%	-4.63%
23.4.5	BUY	45,000	-20.35%	0.67%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최정욱)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2025년 5월 19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최정욱)는 2025년 5월 19일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 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등급 관련사항 및 투자 의견 비율공시

- 투자 의견의 유효기간은 추천일 이후 12개월을 기준으로 적용

기업의 분류

BUY(매수)_목표주가가 연주가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목표주가가 연주가 대비 -15%~15% 등락
Reduce(비중축소)_목표주가가 연주가 대비 15% 이상 하락 가능

산업의 분류

Overweight(비중확대)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 이상 상승 여력
Neutral(중립)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Underweight(비중축소)_업종지수가 현재지수 대비 -15%~15% 등락

투자등급	BUY(매수)	Neutral(중립)	Reduce(매도)	합계
금융투자상품의 비율	94.98%	5.02%	0.00%	100%

* 기준일: 2025년 5월 16일